미국의 진면모 5

번영이 아니라 멸망이다

번영이 아니라 멸망이다

조선 · 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105(2016)년

차 례

《승자》의 고배

1990년대초에 이르러 오랜 기간 세계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있던 쏘미대결은 마침내 막을 내리웠다.

미국은 사회주의를 무너뜨린 《승리》의 열광에 들떠 《축배》를 들었다.

지난 수십년동안 세계는 그 성격에 있어서 제3차 세계대전이나 같았던 랭전이라는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 하였다.

근 40년동안 세계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이며 기초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랭전은 근원적으로 볼 때 자기의 세계제패야망실현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되고있던 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여 미제가 도발한 또 한차례의 세계대전이였다.

랭전으로 하여 무려 2 000여만명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였으며 여기에 가담한 국가들의 재부는 거덜이 났다.

이러한 랭전이 종식되게 된 기본요인은 세계평화애호력량의 완강한 노력과 적극적인 투쟁에 있었다.

1950년대 조선전쟁에서의 미국의 패배와 그후 꾸바혁명을 비롯하여 세계도처에서 날로 강화되

는 사회주의혁명과 반제민족해방운동들 그리고 나토로부터의 프랑스의 탈퇴와 같은 제국주의대렬내에서의 더더욱 격화되는 내부모순과 암투들은 미제가 자기의 지위를 잃고있다는 명백한 표시로 되였다.

랭전종식을 더욱 압박한것은 거기에 드는 막대한 경제적비용이였다.

미국에서는 도합 수조US$라는 막대한 자금이 국내에서의 복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기생산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간섭활동들에 소비되였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러한 군사적간섭활동들은 국내에서의 여러 경제부문들에 들어가야 할 자금을 빨아갔으며 국가예산을 긴장하게 만들어놓았다.

랭전에 드는 경제적대가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 이전 쏘련보다 미국에게 있어서 더 큰 골치거리였다.

하기에 랭전초기라고도 할수 있는 1950년대에 호전광 아이젠하워까지도 랭전에 드는 비용은 국내에서의 건전한 경제정책을 부식시킨다고 아우성을 쳤으며 1960년대에는 《총이냐 빠다냐》라는 문제가 미국전반을 휩쓰는 가장 치렬한 론쟁거리로 되여있었다.

랭전이 새로운 고조기를 맞은 1970년대에는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선데다가 미국국민들이

랭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를 더더욱 싫어한다는것을 간파한 닉슨이 동맹국들에 《부담을 나누어지자.》고 호소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1980년대에도 경제적비용은 미국의 호전광들에게 있어서 의연 가장 큰 골치거리들중의 하나로 되여있었다.

비록 미제는 자기들이 랭전에서 《승리》하였다고 환성을 질렀으나 실지 랭전에서는 그 어느 편도 승리자로 되지 못하였다. 쌍방은 랭전으로 막대한 대가를 치르어야 하였으며 미국은 극상해서 이전 쏘련보다 그저 조금 더 지탱한것뿐이였다.

사실 미국은 랭전에서의 《승리》에 대하여 기뻐할 처지도 못되였다.

랭전이 종식될 당시 미국이 안고있던 정치경제적 및 사회적위기는 절정에 달하고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비틀거리고있던 미국의 경제는 1990년대에 이르러 그야말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있었다.

국민총생산액은 년평균 0.7%밖에 장성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1930년대의 대공황시기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였다.

1992년에 이르러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실업자대렬에 보충되였으며 취업률은 대폭 줄어들었다. 직업을 가지고있던 사람들조차도 그 수입이

한심하였다. 1991년 당시 중간수준의 가정들의 수입이 3.5% 떨어졌는데 이것은 1973년의 경제침체기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것이였다.

1992년 미국의 빈곤자수는 1964년이래 최고를 기록하였다.

부쉬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부과철회를 지지하면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있던 실업자들에 대한 구제금지출은 반대하였다.

련방예산적자는 더더욱 늘어나 1990년에는 2 200억US＄, 1991년에는 2 690억US＄, 1992년에는 2 900억US＄에 달하였으며 련방채무는 1992년에 무려 4조US＄계선에 이르렀는데 이것들은 모두 해당한 리자를 덧붙여 안고있었다.

기업들 역시 막대한 채무를 안고 허덕이였다. 모든 부문의 회사들은 불경기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로동자들을 해고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불평등이 날을 따라 더욱 심해짐에 따라 사회적모순이 커갔으며 폭력범죄 특히는 살인과 깡패들사이의 싸움질이 급증하였다. 학교중퇴률이 늘어나는만큼 범죄률과 어린이영양실조률도 늘어났다.

1990년 당시 미국에서는 녀성들은 6명중 1명이, 남자들은 8명중 1명이 빈궁선이하에서 생활하였다.

1930년대 경제대공황이 일어났던 때를 생생히

기억하고있던 미국인들은 당시의 대통령이였던 허버트 후버에 대하여 상기하면서 부쉬를 가리켜 《죠지 허버트 후버 부쉬》라고 야유하였다.

경제분야뿐이 아니였다. 대외관계분야에서의 실태는 더 한심한 형편이였다.

부쉬(1세)는 대외문제를 국내문제보다 우선시하였다. 중국주재 미국대사, 미중앙정보국 장관, 부대통령직을 거친바 있는 부쉬는 자신을 국제관계문제전문가로 여기고있었으나 사실상 그는 대외관계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구상과 제안도 가지고있지 못한 그야말로 서푼짜리외교관이였다.

랭전식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데다가 또 변천하는 시대에 대응할수 있는 계획도 전혀 가지고있지 못했던 부쉬를 비롯한 《봉쇄정책의 고아》들은 랭전이 종식되는 시점에 와서는 더욱 갈팡질팡하면서 그에 대응되는 아무러한 본질적인 행동도 취하지 못하였다.

랭전의 종식은 초대국들의 그 무슨 결심과 결단의 산물이 결코 아니였다.

그것은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광범한 세계평화애호력량의 단합된 투쟁의 산물이였다.

미제는 겉으로는 랭전에서의 《승리》에 대하여 떠들면서 애써 웃음을 지어보이려 했으나 그 대가는 너무도 엄청나고 복통이 터질 정도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채무와 예산적자, 날로 악화되여가기만 하는 경제형편, 늘어나는 실업자대렬과 빈궁률 이 모든것은 지난 수십년동안 전쟁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려온 미국이 치르어야 할 너무도 응당한 대가였다.

더우기 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는 좌절된것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기초우에서 더욱 활력있게 전진하고있었다. 1992년 평양선언의 발표가 그를 실증해주고있었다.

미국은 사실상 시련을 통하여 더욱 강해진 사회주의와 정의의 력량에 대항하여야 하였다.

애당초 《축배》란 미제에게는 당치 않았다.

세계제패야망을 버리지 않는 한 미제에게는 오직 쓰디쓴 《고배》만이 차례질것이다.

몰리우는 《초대국》

랭전종식을 계기로 힘의 균형이 파괴되자 미제는 기고만장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에 자기들의 의사를 마구 내리먹이며 전횡을 부리였다.

만전쟁, 꼬쏘보전쟁 역시 강권과 전횡, 일방주의정책의 산물이였다.

21세기에 들어와 부쉬일당은 《반테로전》을

미국의 국가기본정책으로 내세우고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이어 2003년에는 유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침공을 감행하였다.

전쟁같지도 않은 전쟁판 한두개를 벌려놓고 기고만장해진 미제는 국제재판관행세를 하려들면서 이 나라, 저 나라들의 문제들에 코를 들이밀고 그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미제에게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더 많은 결과를 안겨주었다.

세계도처에서 자칭《초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이리몰리우고 저리쫓기우는 신세에서 헤여나오지 못하고있다.

미제는 중동평화에 관심이 있는것처럼 그 무슨《로정도》의 리행이니 뭐니 하면서 이 지역문제에 머리를 들이밀었지만 얻은것은 쥐뿔도 없고 오히려 국제사회앞에서 자기의 무능력과 취약성을 더더욱 드러내보였다.

미국이 주도하던 수리아－이스라엘분쟁중재자로 뛰르끼예가 나서는가 하면 레바논내부분쟁중재자로는 까타르가 나섰다.

미국으로서는 억이 막힐 노릇이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도 그럴것이 이 지역 나라들은 아무런 실속도 없이 이 지역의 암적존재인 이스라엘의 편만을 대변하는 미제의 일방주의적이며

편견으로 가득찬 《평화공약》이니 《평화발기》니 하는따위에 더이상 속으려하지 않았던것이다.

세상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목격하면서 이것은 힘이 진한 늙은 수사자가 젊은 수사자에게 자리를 내놓는 모습을 방불케한다고 야유하였다.

허나 중동지역에서 당한 망신이 아무리 크다한들 그것은 세기를 두고오면서 미국의 《고요한 뒤동산》으로 알려져있던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당한 수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였다.

2011년 12월 2일과 3일 베네수엘라의 까라까스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나라들의 수뇌자회의에서는 미국과 카나다를 제외한 33개 아메리카나라들로 구성된 정치동맹인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국가공동체창설이 선포되였다.

이것은 미국의 정치적지배를 끝장내고 자주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세계무대에서 지역의 영향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이 지역 나라들의 단합된 투쟁의 결과였다.

력사적으로 볼 때 미제는 1948년 3월 아메리카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 분쟁의 평화적해결, 성원국들간의 정치, 경제, 과학기술 및 문화분야에서의 협조를 실현한다는 간판밑에 아메리카나라들을 망라한 아메리카국가기구라는것을 조작

하였다. 그러나 이 기구는 미제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것으로서 아메리카지역을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반미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미제의 도구에 불과하였다.

1959년 꾸바혁명이 승리하고 이 나라가 사회주의길로 나아가자 미제는 1962년 2월 아메리카국가기구 외무상회의를 소집하고 꾸바를 기구성원국에서 제명시켰으며 꾸바혁명을 압살하기 위한 부당한 조치들을 취하게 하였다. 1965년 도미니까에 대한 무장간섭때에도 미제는 이 기구를 어용나팔수로 리용하였으며 포클랜드분쟁때에는 기구가 아르헨띠나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등 부당한 행동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로부터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아메리카국가기구는 미국의 식민지문제담당성처럼 행동한다.》고 하면서 미제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기구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의문시하거나 외면하여왔다.

새 세기에 들어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련이어 진보적이며 반미자주적인 정권들이 출현하였으며 많은 나라들이 미제의 지배권에서 뛰쳐나와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니까라과, 에꽈도르 등

이 지역 나라들에 새로 등장한 진보적인 정권들은 미국의 간섭과 지배책동을 반대하여나섰으며 호상 련대성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아메리카동맹을 결성하는 등 미국의 내정간섭책동에 단합된 힘으로 대응하면서 자주적인 길로 나갔다.

남아메리카동맹결성 당시 외신들은 이 기구는 중앙 및 남아메리카나라들만이 참가하는 지역기구로서 그 발족은 미국에 큰 도전으로 된다고 평하였다.

이러한 반미적인 움직임은 미국의 신경을 몹시 자극하였으며 하여 미제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다고 하면서 분주탕을 피웠다.

2007년 3월 부쉬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돌아치면서 《아메리카자유무역지대》창설에 대하여 목청을 돋구었으며 브라질을 끌어당겨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을 어째보려 하였으나 브라질정부까지도 이 나라들과 합세해나서는바람에 본전도 찾지 못하는 형편이 되였다.

이렇게 되자 미제는 이미전에 해산하였던 미제4함대를 다시 내오고 이 지역에 대한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이 지역을 군사적으로 타고앉을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미제는 이 함대를 다시 내오는 목적이 마약밀

수 및 테로와의 효과적인 작전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데 있다고 하였으나 미제가 대서양함대와 태평양함대에 소속되여있던 일부 무력과 핵항공모함 1척까지 포함하여 제4함대를 다시 내오게 된 기본동기는 한마디로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저들의 지위가 흔들리고 날로 약화되는데 불안과 위구를 느끼면서 군사적힘으로 그것을 유지강화하려는데 있었다.

미제의 군사적간섭책동의 위협이 날을 따라 더욱 커지게 되자 남아메리카나라들은 방위리사회를 창설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갔다.

브라질대통령이 내놓은 이 제안은 베네수엘라, 아르헨띠나 등 여러 나라들의 호응을 받았으며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는 군사적힘을 키우고 공동의 노력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날을 따라 활발해졌다.

자료에 의하면 2003년에 250억US$였던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의 군사비지출총액은 2007년에는 무려 380억US$로 늘어났다고 한다.

브라질, 아르헨띠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꽈도르, 뻬루 등 12개 나라를 망라하고있는 남아메리카국가동맹은 성원국들이 공동의 국방, 안보정책을 수립하고 방위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보다 긴밀히 해나가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들을 세웠다.

그러던 2008년 9월 볼리비아는 자기 나라의 반정부세력과 야합하여 그 무슨 《항의》행동을 조장시키고 나라의 분렬을 사촉한 자국주재 미국대사를 추방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대한 련대성의 표시로 베네수엘라도 자국주재 미국대사에게 72시간만에 당장 자기 나라에서 떠나갈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에꽈도르대통령은 안데스국가공동체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들이 실제적이고 검증된 근거들을 가지고있다고 확신한다. 에꽈도르도 자주적인 결정을 내릴것이다.》라고 언명하였다. 온두라스대통령도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이 조치를 지지하면서 자기 나라도 당분간 새 미국대사를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라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한마디로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배척과 수모의 대상으로 되였다.

미국의 침략적인 대아메리카정책은 파산의 길을 걷고있으며 이 지역에서 미제의 처지는 날을 따라 더욱 어려워지고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라틴아메리카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지배책동이 총파산되고있으며 미국은 자기의 《고요한 뒤동산》에서도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는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한편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동맹이 출현하여 새 아프리카건설의 길로 나가고있는가 하면 아시아에서는 동남아시아국가련합(아세안)과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까지 망라한 상해협조기구가 또 그들대로 미제의 세계《일극화》책동에 맞서나가고있다.

신흥경제대국들인 브라질, 로씨야, 인디아, 중국, 남아프리카를 망라한 《브릭스》(BRICS)까지 출현하여 미제의 《일극화》책동에 커다란 빗장을 질러놓고있다.

미국이 겪고있는 심각한 위기를 놓고 국제적으로 미국의 《유일초대국》시기가 막을 내리고있다는 소리들이 나돌고있던 때에 미국신문들인 《로스안젤스 타임스》, 《시카고 트리뷴》까지도 이에 합세하여 《미국의 시기》가 끝나고 다극세계가 출현하고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하여 세계를 놀래웠다.

미국이 《초대국》으로 군림하여 강권과 패권주의몽둥이로 세계를 제마음대로 주물러대던 시기는 영영 지나갔다.

버림받는 외토리

지난 시기 미국과 서유럽나라들은 많은 문제들에서 공통된 립장을 취해왔으며 이것은 미국과 서방이 저들의 가치관을 전파하는데서 중요한 밑천으로 되였다. 정치분석가들이 만전쟁과 꼬쏘보전쟁을 미국과 유럽의 합작품이라고 한것도 바로 이러한 리유에서였다.

그러나 독선적이며 일방주의적인 미제의 전횡과 강권은 동맹국들까지도 도리머리질을 하지 않을래야 안할수 없게 만들었다.

1991년의 만전쟁과 1999년의 꼬쏘보전쟁을 치르면서 서유럽나라들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안하무인격으로 전횡과 독단을 일삼는 미제의 독판치기놀음에 신물을 느꼈다.

더우기 저들이 벌려놓은 침략전쟁들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자기들에게 분담시키고는 먹이나눔에서는 자그마한 에누리도 없이 몽땅 독차지하군 하는 미제의 성찰줄 모르는 욕심은 동맹국들을 아연케 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과 동맹국들의 다툼질은 《에쉘론》사건으로 첫 막을 올렸다.

지난 시기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의

정치, 군사통신들을 도청하기 위하여 미제가 주동이 되여 서방렬강들이 운영해오던 전자도청장치인 《에쉘론》은 120개의 첩보위성을 골격으로 하여 전화, 확스, 무선통신, 전자우편 등 모든 종류의 통신을 도청하고 분류하는 철저한 극비대상이였다.

미제는 《에쉘론》을 리용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반미자주적인 나라들만이 아니라 동맹국들에 대한 정탐행위도 가리지 않고 일삼았다.

특히 미제는 프랑스, 도이췰란드, 영국을 비롯한 유럽동맹국들을 누르고 저들의 경제적우위, 상업적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비렬한짓을 서슴지 않았으며 여러 나라들의 정치활동가들과 조직, 단체 지어는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보호단체들과 인권옹호단체들에 대한 정보까지 수집하였다.

미제가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에쉘론》을 리용하여 불법도청행위를 감행하는데 격분한 동맹국들이 그 정체를 낱낱이 폭로해버린것이였다.

《반테로전》을 계기로 미제와 동맹국들사이의 대립과 모순은 더욱 표면화되였다.

많은 나라들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무력을 파견하고 미군의 군사작전에 자금을 제공해줄데 대한 부쉬행정부의 요구를 배격하였으

며 지어는 이미 파견하였던 병력들까지도 철수시키였다.

이라크에서의 병력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총선거에서 승리한 에스빠냐수상은 포웰 등이 찾아와 집요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군대를 철수시키였으며 그에 뒤이어 노르웨이, 네데를란드, 뉴질랜드 등의 나라들이 이라크에서의 자국군대철수로 미국을 곤경에 몰아넣었다.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유전자변이농산물을 둘러싼 분쟁은 세기를 이어가며 계속되고있다.

유럽동맹이 유전자변이식품이 사람과 집짐승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과학적증거가 없다고 그 판매를 금지시킨 반면에 미국은 유전자변이식품판매금지는 국제무역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복닥소동을 피웠다.

미국이 유전자변이식품판매를 고집하는데는 역시 음흉한 속심이 깃들어있다.

현재 미국에서 재배되는 콩의 75%, 강냉이의 71%가 유전자변이식물이다.

미국은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유전자변이식품을 제한없이 마구 판매한다면 막대한 리득을 볼수 있는것은 물론 유전자변이작물재배를 전세계에 확대시키고 그 패권을 잡을수 있다고 타산하였다. 특히 미국은 아프리카의 기아문제를

거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유럽동맹이 유전자변이농산물을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게 되면 아프리카에서도 그것을 받아물수 있다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유럽동맹은 물론 잠비아, 짐바브웨,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의 주요농산물생산국들도 유전자변이농산물재배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중요한 리유는 나라의 농업주권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만일 강냉이를 주식으로 하는 대부분의 아프리카나라들이 미국의 유전자변이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종자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데 결국 작물재배에서 기본인 종자문제의 종속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며 그것은 나아가서 주권예속에로 이어지게 된다는것이 아프리카나라들의 견해이다.

미국은 유전자변이농산물이 안전하고 생산성이 높다느니, 집단적인 단일작물재배농업에 적합하다느니 하면서 대대적인 선전공세를 펴는 한편 유럽동맹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 복닥소동을 피웠으나 그 해결전망은 보이지 않았다.

미국의 제일 손아래동맹자로 인정받는 일본까지도 자기의 경제적리해관계를 놓고는 조금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으며 지어는 자국국민들의 압력에 의하여 후텐마미군사기지이설문제를

들고나오기까지 하였다.

약육강식의 생존방식을 가진 제국주의렬강들사이의 모순과 대립은 불가피한것이다. 상품시장이 더 좁아지고 자본의 증식과 치부의 길이 막히는데 따라 렬강들사이의 모순과 대립은 더욱더 격화될수밖에 없는것이다.

동맹국들에게서까지 따돌림을 받는 가련한 외토리신세가 바로 아메리카제국이 오늘날에 처한 가련한 신세이다.

공포의 악몽속에서

그 누구도 자기를 다칠수도, 건드릴수도 없는 《강대국》으로 자처하던 미국이 오늘날 무서운 공포심리에 빠져 악몽속에 헤매고있다.

1993년 12월 1일 도이췰란드신문 《디 월트》는 지난 조선전쟁에서 황천객이 된 미군유골반환문제를 북조선의 《핵문제》와 결부시켜 전하면서 지금까지 북조선은 4 023구의 유골을 미국측에 넘겨주었는데 그중 미군유골은 1 869구, 나머지는 동맹국병사들의 유골이라고 전하였다.

판문점에서 미군유골을 인계인수하는 장면이 방영되자 미국인들속에서는 커다란 공포심이 생겨났다.

이라크, 빠나마, 리비아 등에서 공중타격으로 저들의 힘의 위력을 과시하는 장면들만을 보아온 미국인들은 그러지 않아도 무서운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있는 조선과 전쟁을 하는 경우 수십만명의 미군이 무주고혼이 되리라는 위구심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특히 남조선주둔 미제침략군과 그 가족들이 공포에 사로잡혔다. 남조선주둔 미 8군사령관은 조선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남조선에 와있는 미군 3만 600여명(당시)이 먼저 죽는다고 하면서 미국이 양보하는 한이 있어도 조선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백악관에서는 이들을 위안하기 위하여 해마다 대피훈련을 벌리면서 미군가족들을 비행기에 태워 일본으로 피신시킬 방안을 내놓았으나 공포에 질린 미군병사들속에서는 정신분렬증환자가 속출하고 지어는 자살자들까지 발생하였다.

강경보수인물로 알려져있던 전 미 8군사령관은 조선에 한번 왔다간 다음부터는 점차 입을 다물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이 조선에서 전쟁의 불을 지르는것은 조선의 함정에 빠지는것으로 된다고 머리를 저었다고 한다.

미군부우두머리들이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과연 미국의 사망자가 얼마나 날것인가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콤퓨터를 가동시켜 계산했는데 전쟁개시 첫날에 벌써 파멸적인 타격을 받게 될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1993년 12월 11일 《워싱톤 포스트》는 미국방성에서 진행된 콤퓨터모의전쟁씨나리오를 공개했는데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매번 저들이 패하는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1993년 11월 미국잡지 《뉴스위크》도 미국방성 두뇌집단이 콤퓨터를 가지고 조선침략을 위한 모의전쟁을 하였는데 매번 저들이 패하는것으로 답이 나왔다고 개탄하였다.

미제가 유고슬라비아공습이후 제2의 조선전쟁준비상태를 재검토하고 전쟁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27》을 실현하겠다고 전쟁열을 고취하고있던 때의 일이다.

당시 미중앙정보국 장관 죠지 테네트는 국회상원 군사위원회에 낸 보고서에서 북조선은 미국과의 전쟁에 준비되여있다, 북조선의 새세대 미싸일이 곧 미국에 날아올수 있게 될것이다, 미싸일은 미국령토인 얼래스카와 하와이에 도달할수 있으며 보다 많은 연료를 장진하면 미국의 기타 지역에도 도달할수 있을것 같다라고 하면서 군사적압살보다 유화정책으로 자본주의바람을 넣어보자고 제기하였다.

《광명성 1》호의 성과적인 발사는 미제의 간담을 서늘케 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였다.

이 소식에 접한 미국의 신문들은 《북조선에서 최근에 진행한 3계단미싸일에 의한 위성발사는 북조선이 미국 전역을 공격할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시사하고있다.》, 《미국이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자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될뿐아니라 아직까지 북조선미싸일을 막을만 한 정도로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아우성을 쳤다.

전 나토군 부총사령관이였던 도이췰란드군 대장이 신문에 낸 글도 미국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미국이나 임의의 나라들이 북조선과 전쟁을 하면 이길수 없다.

그 리유는 첫째로, 북조선에는 …**김정일**장군님이 …군대를 지휘하고계신다.

둘째로, 북조선에는 잘 훈련되고 무장되고 째여있어 당장 전투에 진입할수 있는 …군대가 있다.

셋째로, 북조선에는 이 나라 사람들이 자력으로 만든 재래식무기와 함께 현대적미싸일이 있다. 이 나라의 군사잠재력은 그 누구도 모른다.

넷째로, 북조선은 유격전의 전통을 가진 나라

이다. 현대전이 유격전법과의 싸움에서 이긴 례가 없다. 중국, 윁남,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을 보라.

다섯째로, … 특히 북조선사람들은 자기 지도부에 대한 숭배심이 강하다. 자기 지도자의 명령을 지키는것은 이 나라 국민의 품성으로 되였다.

여섯째로, 북조선은 80%이상이 험한 산악이다. 량반군대들은 공포를 주는 이런 지형조건에 숙달될수 없다.

일곱째로, 북조선은 40여년간 미국과의 전쟁준비를 해왔다. 미국과의 전쟁에 숙달된 민족이다.》

오늘 조선은 선군으로 그 위력이 더욱 백배해졌으며 핵보유국이라는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이것은 미국의 반동지배층들과 미제침략군에게 더욱 큰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고있다.

어제날의 《강대국》이 공포속에 헤매는 현실은 미국의 멸망은 멀지 않았으며 미제가 조선에서 전쟁의 불집을 다시 터뜨린다면 무주고혼의 신세를 절대로 면치 못할것임을 예고해주고있다.

력사의 고발

《자유의 녀신》상은 울고있다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자유의 녀신》상이 서 있다. 이것은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 바르똘리가 제작한것이다.

바르똘리는 프랑스에서 루이 보나빠르뜨가 정변을 일으켜 제2공화국을 전복한 날에 빠리의 시가에서 한 소녀가 홰불을 추켜들고 《앞으로!》 구호를 웨치면서 시민들의 앞을 가로막은 바리케트를 뛰여넘어 내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였다. 그러나 이 용감한 소녀는 놈들의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말았다.

그때부터 홰불을 높이 들고 내달리던 이름모를 소녀의 모습은 바르똘리의 가슴속에 자유의 상징처럼 자리잡게 되였다.

바르똘리는 그 이후 미국에서 독립 100돐을 경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각품 《자유의 녀신》상을 만들어 전람회에 출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875년 조각상이 기본적으로 완성되자 그는 조각상을 미국인들에게 보이기로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주재 미국공사를 비롯한 미국인들은 그 조각상을 보고도 별로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바르똘리는 미국독립 100돐전람

회에 홰불을 든 한쪽팔만을 형상한 조각상을 출품하였다.

출품회에서 손가락길이만 하여도 8ft(1ft는 30.48㎝)나 되는 《자유의 녀신》상은 큰 인기를 끌게 되였고 미국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미국으로 보내지게 되였다. 바르똘리는 그때 자유와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미국식민주주의에 대한 동경과 환상을 가지고 미국을 자유의 천국으로 여기고있었던것이다.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것은 미국대통령인 링컨이 기만적인 노예해방을 부르짖으면서 미국의 정치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라는 멋들어진 미사려구로 표방한것을 그대로 믿은 까닭에서였다.

1885년 6월 《자유의 녀신》상은 뉴욕항에 도착하였으며 이어 항구에 설립되였다.

《자유의 녀신》상의 높이는 46m이다.

미국사람들을 포함하여 자본주의세계가 《자유의 녀신》이라고 그처럼 요란히 광고하는 이 조각상은 일명 《자유는 세계를 밝힌다》는 이름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본주의세계의 상징이라고 자랑하는 이 녀신상은 노예의 쇠사슬을 짓밟고 오른손에는 밤하늘을 밝히는 홰불을, 왼손에는 1776년 7월 4일이라는 미국독립의

날을 새긴 미국독립선언을 들고 오늘도 화강암 대돌우에 우울하게 서있다.

이 녀신상을 세울 때에만 하여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자본주의사회에 현혹되여있었다. 그러기에 이 조각상을 세운다는 소식에 접하고 흥분한 미국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기부금을 냈고 《벨포르의 사자》조각으로 이름떨친 재능있는 바르똘리는 심혈을 다하여 이 조각상을 만들었던것이다.

20세기를 눈앞에 둔 1886년 10월 2일 바르똘리와 많은 유명인사들의 참가하에 당시 미국대통령 클레브렌드는 자본주의세계의 영원한 번영을 바라면서 뉴욕 맨하탄에서 《자유의 녀신》상을 엄숙히 제막하였다. 그때 바르똘리를 비롯한 제막식참가자들은 《자유의 녀신》상을 바라보면서 자유의 홰불이 온 세상을 환히 밝혀 마침내 인류가 그처럼 바라마지 않던 자유와 민주주의시대가 당장 도래할것만 같은 환각에 휩싸여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위선적인 미국식민주주의는 만사람들이 그처럼 열광적으로 기대하던 참다운 자유와 민주주의를 안겨주는것이 아니라 살인과 략탈, 침략과 파괴만을 세계에 가져다주었다는것을 뒤늦게야 알게 되였다.

《자유의 녀신》상은 미국의 본성과 정체를 감추기 위한 하나의 위선적이며 기만적인 구조물에 불과한것이다.

워터게이트추문사건

몰락해가는 집안에는 추문도 많은 법이다. 오늘 미국은 추문이 많은 나라로 통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매일매시각 세상을 놀래우는 추문들이 생겨나고있다.

미국이 세상을 놀래운 추문들중 단연 첫자리를 차지할수 있는것은 1972년에 일어난 워터게이트추문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미국력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대통령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자리를 내놓았으며 수많은 관련자들이 벌을 받았다. 이 사건의 주범은 다름아닌 미국대통령 닉슨이였다.

1972년에 있은 대통령선거에서는 공화당출신후보 닉슨이 민주당후보 맥가븐을 누르고 대통령으로 재선되였다.

허나 재선의 기쁨이 채 사그러지기도전에 선거깜빠니아기간에는 거의나 알려지지 않고있던 사건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바로 1972년 6월 17일 워싱톤에 있는 워터게이트청사(민주당본부청사)에 대한 불법침입사건이였다.

이날밤 청사경비원은 지하차고를 통해 그

누군가가 비법적으로 청사에 침입한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통보하였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새벽 2시 30분 민주당전국위원회 6층사무실들의 전화기들에 도청장치들을 설치하고있던 5명의 사나이들을 체포하였다. 그 사나이들은 사진기들을 휴대하고있었으며 체포될 당시 사무실에서 문건철들을 털어내고있었다.

체포된자들중 한명은 닉슨의 대통령재선위원회 안전요원인 이전 미중앙정보국 요원 제임스 맥코드였으며 다른 네명은 마이아미에서 온 까스뜨로반대파계렬의 꾸바인들이였는데 그들은 오래전부터 미중앙정보국과 협조해오고있었다.

이들의 청사침입시 경찰이 모르게 또 다른 2명이 워터게이트청사에 침입하였는데 한명은 대통령재선위원회 안전보장책임자로 있던 이전 미중앙정보국 요원 하우워드 한트였고 다른 한명은 백악관에서 근무하고있던 이전 미련방수사국 요원 고든 리디였다.

이들은 도대체 민주당본부청사의 사무실들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였으며 전화기들에 설치한 도청기들을 통하여 무엇을 듣고싶어하였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누가 그들에게 이러한 임무를 주었겠는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워터게이트사건은

1971년부터 시작되였다고 볼수 있었다.

이해 백악관은 닉슨의 대통령재선위원회와 함께 특별조사단도 조직하였는데 그 목적은 정부의 비밀문건들이 사회에 루출되는것을 방지하자는데 있었다. 웰남전쟁에 대한 백악관의 립장과 태도를 보여주는 미국방성 극비문서가 공개된 후 특별조사단의 성원들은 이 비밀문건을 출판보도계에 루출시킨 다니엘 앨스버그의 자료들을 얻기 위하여 그의 사무실을 은밀히 수색하였다.

문건들을 촬영하고 도청장치들을 설치하기 위하여 민주당전국위원회청사에 침입한것도 바로 이 특별조사단 성원들이였다.

대통령재선위원회는 워터게이트청사침입사건의 이전과 이후에 이 조사단 성원들에 대한 보수를 더 높여주었다.

워터게이트청사침입자들이 체포되자 백악관에서는 복닥소동이 벌어졌으며 그와 련관이 있는 모든 문건들은 처리되였다.

하우워드 한트의 이름이 백악관전화번호책에서 삭제되였으며 닉슨대통령은 국가안보상리유를 내걸고 련방수사국의 조사활동을 무마시킬것을 지시하였다.

사건이 발생하자 즉시 민주당은 대통령재선위원회와 5명의 범인들을 재판에 기소하였다.

닉슨의 선거깜빠니야를 총지휘하기 위하여 사법장관직을 내놓았던 죤 미첼은 이 소송은 민주당의 극악한 음모의 또 하나의 실례라고 하면서 대통령재선위원회는 이 사건에 관계된 5명의 사나이들과 아무런 련관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닉슨은 출판보도계앞에서 백악관고문 죤 딘이 완전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대통령행정부내의 그 누구도 이 더러운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다는것이 판명되였다고 공포하였다.

그러나 이미전에 닉슨은 내적으로는 대통령재선위원회에 한트를 비롯한 5명의 사나이들이 백악관을 이 놀라운 범죄활동과 련루시키는것을 막기 위하여 46만US$를 긴급사용할것을 지시하였다.

이 사건을 덮어두기 위한 백악관의 노력은 처음에는 성과적으로 추진되는듯싶었으며 선거깜빠니아기간에 거의나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기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꾸준한 활동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닉슨은 얼마든지 자기가 이 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덮어두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거에서의 닉슨의 승리가 있은 후 여러가지 추측들과 가설들이 서서히 제기되였다.

1973년초 련방지구재판소가 범죄자들을 취급하였는데 그들중 1명이 자기가 대통령재선위원회

와 그리고 백악관과 련관이 있다는것을 인정하였다.

5월부터 11월사이의 기간에 선거깜빠니아활동조사상원위원회는 백악관 보좌관들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이때 진행된 조사에서 백악관고문 죤 딘은 워터게이트사건은페활동이 있었으며 대통령자신이 그러한 활동을 지시하였다는데 대하여 시인하였다. 다른 한 보좌관은 닉슨이 백악관의 사무실들에 도청체계를 수립해놓았으며 워터게이트사건과 관련된 대화내용들도 기록되였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조사위원회는 물론 사회계 전체를 아연케 하였다.

닉슨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속으로는 죤 딘의 진술이 형사소송까지 초래하게 되지 않을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였다. 그는 자기의 두명의 책임보좌관들인 죤 에르리히맨과 헬드맨을 해임하는것으로 자기가 진상은페음모에 가담하였다는것을 감추려 하였다.

전국의 TV시청자들앞에서 연설하면서 닉슨은 자기가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있는자들에 대한 가차없는 행동을 할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백악관내에는 진상은페란 있을수 없다.》라고 하였다.

닉슨은 국방장관이였던 엘리어트 리챠드슨을

사법장관직에 임명하였으며 리챠드슨은 워터게이트사건특별조사관으로 당시 비타협성으로 이름을 떨치고있던 하바드종합대학의 법률교수 아취밸드 콕스를 임명하였다.

리챠드슨의 지지하에 콕스는 10월 재판소지시문을 하달하여 백악관이 가지고있던 도청록음테프를 압수하려 하였다. 그러자 닉슨은 리챠드슨과 그밑의 부장관에게 사임하라고 압력을 가하면서 사법성에서 그들보다 낮은 직위에 있던 한 관리에게 콕스를 특별조사관직에서 해임하라고 지시하였다.

일명 《토요일밤의 대살륙》이라고도 불리워지는 닉슨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비난을 야기시켰으며 하여 대통령은 하는수 없이 우수한 법률학자이며 미국변호사협회의 이전 총재 레온 죠워스키를 새로 워터게이트사건특별조사관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하였다.

닉슨이 여전히 도청록음테프를 내놓기를 거절하자 죠워스키는 닉슨을 재판정에로 호출하였다.

《토요일밤의 대살륙》이 있은 같은 달 닉슨행정부는 또 다른 하나의 추문사건에 부닥치게 되였다. 소득세탈세행위와 뢰물을 받은데 대한 추궁에 아무런 답변도 주지 못한 부대통령 스피로 애그뉴가 사임하였던것이다.

1973년과 1974년 전기간 꾸준한 기자들은 워터게이트사건의 내막들을 더욱 깊이 들추어냈으며 입막음용으로 쓴 자금에 대하여서도 더 자세한 자료들을 손에 넣을수 있었다. 그들은 또한 닉슨의 진상은폐활동에 가담하였던 사람들을 만나 그들로부터도 상세한 자료들을 얻어내였다. 결과 백악관과 대통령재선위원회의 성원들이 재판소출입을 하게 되였으며 닉슨은 그들의 기소되지 않은 공범자로 인정받게 되였다.

《워싱톤 포스트》기자들인 칼 번스테인과 보브 우드워드는 백악관안에서 통보자를 쟁취할수 있었는데 《깊은 목구멍》이라는 암호로 불리운 이 통보자는 닉슨과 그의 측근들에게 매우 불리한 자료들을 련속 기자들에게 제공하여주었다.

1974년 4월말 드디여 닉슨은 도청록음테프의 편집복사판을 재판소에 넘겨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테프는 사건이 터진 바로 첫 시작때부터 내가 여기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있으며 또 내가 당신들에게 설명해온것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보여주게 될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넘겨준 복사테프들은 너무도 공백이 많았다. 그것은 대중에게 용납될수 없었으며 또 닉슨에 대한 탄핵제안을 준비하고있던 하원사법위원회의 눈도 속일수 없는것이였다.

판사들은 일치하게 닉슨은 록음테프원본을 넘겨주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닉슨은 여전히 원본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이와 거의 같은 시기 하원사법위원회는 전국적인 TV청문회를 열었다. 여러날에 걸친 증언진술이 있은 후 위원회는 투표를 진행하여 제기된 5가지 항목중 3가지 항목에 달하는 리유로 닉슨에 대한 대통령문책제안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첫째로, 닉슨이 증인들에게 돈을 찔러주면서 그들의 입을 막으려 하였으며 거짓증언을 하고 증거물을 내놓지 않은것 등으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것, 둘째로, 국회의 호출령장을 무시하였다는것, 셋째로, 미중앙정보국과 련방수사국 그리고 재무성 국내세금국을 리용하여 개인들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권을 침해하였다는것이였다.

8월 5일 드디여 닉슨은 도청록음테프자료들을 전부 내놓았다. 그는 이것이면 자기는 탄핵을 당하고도 남을것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4일후 닉슨은 대통령직에서 사임하였다.

이로써 세상을 소란케 하던 워터게이트사건과 관련한 소동은 막을 내리게 되였다.

미국의 200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임기중간에 쫓겨나게 한 워터게이트사건은 력사에

전례없는 정치추문으로서 미국정치의 부패성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워터게이트사건은 발생한 첫 순간부터 종결되는 마지막순간까지 거짓과 기만, 날조와 부패로 일관되여있었으며 청렴결백과 진실을 떠들어대는 미국정객들의 추악한 진면모를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인 전대미문의 추문사건이였다.

닉슨은 대통령으로 재선되면서 의기양양해서 《앞으로의 4년기간을 미국력사에서 가장 훌륭한 4년으로 되게 할것을 다짐하자. 그래서 독립 200년을 맞는 미국이 …전세계의 밝은 등대로 되게 하자.》고 피대를 돋구었다.

허나 밝은 등대로 되기는 고사하고 미국은 세계앞에서 몰락에로 가는 자기의 추악한 진면모를 더욱 똑똑히 드러내게 되였다.

이란－꼰뜨라추문사건

1986년 일명 《이란게이트》 또는 《꼰뜨라게이트》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추문사건이 일어나 미국의 추문기록을 더욱 풍부히 하였다.

대통령국가안보담당고문 포인덱스터와 보좌관 올리버 노스가 미중앙정보국 담당관 캐씨와 공모하여 비밀리에 이란에 무기를 판매해주고 거

기에서 나오는 리익금을 니까라과의 싼디노정부를 반대하는 꼰뜨라스세력에게 넘겨주어 무기를 사게 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였던것이다.

미국사회는 물론 온 세계가 아연해졌다.

이 사건은 미국회가 꼰뜨라스세력에 대한 무기판매를 금지시킬데 대한 결정을 내린 시기에 벌어졌던것이다. 더우기 이 시기 미국의 반동지배층은 이란을 테로국가로 공격하면서 자기의 동맹국들도 이란과의 무역관계를 단절할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앞뒤가 다른 미국의 처사를 두고 동맹국들은 물론 미국사람들자신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문제는 반미적인 이란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어대던 당시 미국대통령 레간이 어떻게 되여 하루아침에 이란에 대한 무기공급자로 되였는가 하는것이였다.

당시 레간은 니까라과에서 일어나고있는 사회경제적변혁들을 목격하면서 라틴아메리카지역에 제2의 꾸바가 출현하게 될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였다.

니까라과의 싼디노운동지도자 다니엘 오르떼가는 니까라과인민은 《제국주의예속의 과거력사와 인연을 끊어버렸다.》라고 선포하면서 꾸바를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련계를 강화하였다.

그러자 레간은 니까라과의 이 정권을 전복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게 되였고 그에 따라 1981년 미중앙정보국은 일명 《꼰뜨라스》라고 부르는 반란군을 조직하고 훈련을 주었으며 무기와 군사지도까지 제공하였다.

반란군에 가담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전 소모사독재정권을 지지하던자들이였다. 온두라스와 꼬스따리까에 있는 미중앙정보국의 기지들에서 출발한 꼰뜨라스악당들은 니까라과령토에 침입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원유정제시설들과 수송시설들, 병원들과 지어는 탁아소, 유치원들까지 마구 파괴하군 하였다.

미중앙정보국이 니까라과의 항구들에 기뢰들을 부설하여 적지 않은 선박들을 침몰시켰다는 사실이 1984년에 알려지게 되였으며 세계재판소는 니까라과가 미국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였다.

니까라과싼디노정부의 만만치 않은 대응에다 모험적이며 허황하기 짝이 없는 《별세계전쟁》계획을 비롯한 전쟁책동에 미쳐날뛴 결과 초래된 경제위기로 하여 레간행정부는 꼰뜨라스도당에 대한 지원을 더는 하기 힘든 처지에 빠졌다.

하여 미제는 궁상스럽지만 남조선괴뢰들에게까지 꼰뜨라스세력에 대한 자금지원과 무기제공

을 해줄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란—꼰뜨라추문사건은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일어났던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량면적인 미제의 정체를 드러내보이는 동시에 궁지에 빠진 놈들의 궁색스러운 처지도 여실히 반영한것이였다.

무슨 조사요, 청문회요 하는것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연방 열리고 레간행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비발치듯 백악관에 날아들었다.

방송원과 배우경력을 가지고있었지만 레간은 변명할 말을 찾아낼수가 없었다.

만일 그가 이란과 꼰뜨라스세력에 대한 무기판매와 공급이 진행되고있었다는것을 모르고있다면 그것은 그의 무능력을 보여주는것이였다.

또 그가 이란에 대한 무기판매를 알고있었다면 그것은 《테로분자들을 지원하는 이 나라》에 대하여 그 어떤 지원도 하지 않을것이라고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였다.

한편 노스가 비법적으로 꼰뜨라스세력에 무기를 공급해주고있다는것을 레간이 알고있었다면 그것은 이란—꼰뜨라사건조사시 그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거짓증언을 한것으로 되며 또 자신이 직접 서명한 꼰뜨라스세력에 대한

무기공급금지에 관한 국회결의안을 준수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국법을 위반한것으로 되였다.

사람들은《별세계전쟁》과 같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망상들을 늘고다니지 말고 제코나 바로 씻으라고 레간을 신랄하게 야유하였다.

노스를 비롯한 관련인물들이 감옥에 들어갔으며 레간행정부는 더더욱 궁지에 빠져들어갔다.

레간의 뒤를 이어 대통령자리에 들어앉은 죠지 부쉬(1세)가 후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놀아댄 꼴도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의 대상으로 되였다.

1992년 임기완료를 얼마 앞두고 그는 국회에 거짓증언을 한것으로 하여 기소된 여러명의 이전 정부관리들에 대한 사면조치를 취하였다.

사람들은 부쉬의 이러한 처사에서 이 사건을 얼버무려 덮어두려는 기미를 인차 알아차릴수 있었다. 부쉬자신이 레간행정부시기 부대통령으로서 이 사건에 깊이 관련되여있었으며 또 사건조사시에 벌어진 고위급모임들에도 늘쌍 참가하였던것이다.

참으로 이란-꼰뜨라추문사건은 썩을대로 썩고 망할대로 망해가는 미국의 꼴을 세계면전에 다시한번 보여준 추악한 사건이였다.

하늘소와 코끼리

1874년 미국의 이름난 화가 톰스 나스트가 선거경쟁과 관련한 정치만화를 그리면서 민주당은 하늘소로, 공화당은 코끼리로 형상하였다.

만화가 보여주려는것은 민주당은 하늘소처럼 완고하고 공화당은 코끼리처럼 우둔하면서도 무게가 있다는것이였다. 이때부터 하늘소와 코끼리는 미국 량당의 상징으로 되였다.

미국정치의 쌍두마차라고 할수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은 매번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마다 하늘소와 코끼리를 자기 당의 상징으로 들고 치렬한 경쟁을 벌리군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소와 코끼리의 싸움》이라고 부르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하늘소와 코끼리의 싸움은 미국선거경쟁에 대한 형상적인 묘사로, 미국량당제에 대한 적중한 비유로 되고있다.

량당통치제도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두개의 지배적정당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집권하는 반동적부르죠아통치제도로서 영국에서 1688년－1689년에 있은 궁중정변인 이른바 명예혁명을 계기로 토리당(보

수당)과 위그당(자유당)에 의하여 처음으로 확립되였다.

미국에서는 량당통치제도가 남북전쟁후 공화당과 민주당에 의하여 확립되였으며 지금까지 미국독점자본의 지배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계속 리용되고있다.

미국정당제도에는 여러 정당들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에 의한 철저한 2대 정당제이다.

량당제도는 이미 미국의 정치구조에서 공식화되여있으며 미국에서 헌법이나 법규처럼 준수되여야 할 당연한것으로 공인되여있다.

대체로 남부주들에서는 민주당이, 북부주들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하다.

각 정당의 최고기관은 전국대회이다. 4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전국대회에서는 대통령후보를 지명하며 당규약을 심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것과 함께 전국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한다.

력사적으로 공화당은 보수적인 정당으로서 힘에 의한 침략과 전쟁정책을 들고나왔으며 민주당은 교활한 방법으로 인기를 끌수 있는 정책강령을 들고나와 일정한 계층들의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은 각기 차이나는 전략적

인 정치강령을 가지고있는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대통령선거때마다 두당이 들고나오는 선거강령은 서로 어슷비슷하다.

미국력사상 제3의 큰 정당을 창건하기 위한 움직임은 여러차례 있었으나 모두 공화당이나 민주당과 맞설수 있는 세력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하늘소와 코끼리로 형상되는 미국의 량당통치제도의 반동적본질은 독점자본가집단이 교대제로 자기 수중에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보장하는듯이 인민들을 기만하고 진보적인 정치세력의 장성을 억제하며 부르죠아독재를 강화한다는데 있다.

그러니 하늘소가 끌고가든 코끼리가 끌고가든 미국사회가 썩어빠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기는 마찬가지인것이다.

부정부패로 썩어가는 사회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미국에서는 추문사건들이 끊기지 않고 일어나고있다.

2001년 미국에서는 미회계사무소를 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나오게 되였으며 이 기관의 초대위원장으로는 미련방수사국 장관경력까지 가지고있는 웹스터가 임명되였다.

미국에서 이 기관이 나오게 된것은 거대회사였던 엔론회사의 파산과 관련한 추문사건때문이였다.

2001년 12월 미국에서 엔론회사가 파산되였다. 이와 함께 엔론회사와 이 회사의 경영관리상태를 감독하는 회계사무소사이에 얽혀져있던 내막이 밝혀져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엔론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있으면서도 그 내막이 새여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회계사무소에 딸라뭉치를 찔러주었으며 그 사례로 회계사무소는 무겁게 입을 봉하였다.

결국 이 회사의 주권을 가지고있던 많은 사람들이 엔론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도 회사의 구체적인 상태를 전혀 모르고있다가 회사가 망하는통에 앉은 자리에서 봉변을 당하게 되였다.

세상사람들을 더욱 크게 놀래운것은 이 부정흑막관계가 드러남으로써 커다란 물의가 일어나고 엔론회사에 대한 조사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줄줄이 묻어나오는 흥미있는 자료들이였다.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죠지 부쉬(2세)의 정책담당보좌관, 경제담당보좌관, 미통상대표, 미륙군장관 등 대통령행정부의 고위인물들이 엔론회사에서 일을 한 경력을 가지고있거나 혹은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있었다는 사실, 파산을 앞두고 엔론회사의 레이회장이 미상무장관과 전 재무장관에게 이에 대하여 통보하고 도움을 요청한 사실, 부대통령 체이니가 엔론회사의 고위인물들과 접촉한적이 있다는 사실들이 새여나왔다.

이러한 사실들이 공개되자 미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사회계는 이 사건을 제2의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묘사하며 벅적 떠들었다.

부쉬행정부는 곤경에 빠져들게 되였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땀을 뽑게 되였다. 여기에 부쉬가 직접 나섰다.

그로 말하면 하켄 에너지회사의 역원을 해먹을 때부터 돈을 떼먹고 꼬리를 사리는데서는 명수였다. 그때 그는 거액에 달하는 주권을 떳떳치 못한 방법으로 팔아먹고 그 돈으로 텍사스의 야구단 《텍사스 레인져즈》를 살수 있었다.

당시까지 부쉬의 어스크레한 부정추문이 문제시되고있지 않은것은 지난 시기 엔론회사의 회계사무역을 수행한 엔데슨이 그 내막을 막아나섰기때문이였다.

미국의 한 작가는 이것을 놓고 부쉬가 법의 짬사이를 교묘하게 뚫고 유리한 구멍수를 리용하여 투자하고는 후에 몸을 빼는 그야말로 부정내부거래의 명수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질을 소유하고있는 부쉬가 속수무책으로 있을리 만무한것이였다.

우선 그는 여론부터 무마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제일가는 적수인 민주당도 엔론회사와 부정거래를 가지고있다는것을 내흔들면서 형세를 역전시키려 하였다. 물론 그의 이러한 잔꾀가 일정한 효과를 나타낼수는 있었으나 민심을 누를수는 없는것이였다.

그래서 부쉬는 하는수없이 공개연탁에서 《기업간부들의 범죄행위가 판명되는 경우 형무소에까지 보낼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뒤이어 미회계사무소를 감독하는 독립기관이 나왔으며 그 위원장으로 미련방수사국 장관직까지 지낸바있는 웹스터가 임명되였던것이다.

그러나 문제로 되는것은 웹스터가 위원장으로 임명된지 몇주일만에 사임하고만것이다. 웹스터

는 사임을 발표하면서 《내가 감독기관에 있는것이 더 큰 혼란에로 이어진다.》라고 말하였다.

미국내에서 성행하는 부정협잡행위, 금권정치를 예방할데 대한 중책을 지닌 그가 왜 갑자기 사임하게 되였는가.

외신들은 웹스터가 사임하게 된데는 그의 지지자였던 미국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피트가 교체된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트는 미국에서 기업계는 물론 정치계에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있던 인물이였다. 그런데 그가 어떤 리유에서인지 자리를 내놓게 되였다.

사실상 미국에서 각종 기업들의 부정협잡행위들을 막아낸다는것은 흙 한줌으로 터진 제방을 막는다는것이나 다름없는것이다. 정계, 사회계를 비롯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공간들을 거미줄처럼 련결하고있는 오만가지 사기, 부정협잡의 련쇄고리들을 끊어보겠다고 혼자서 애를 쓰기보다는 차라리 조용히 물러나앉는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웹스터가 사임했을것이다.

곰팽이가 낄대로 끼고 썩을대로 썩은 미국이 갈길은 몰락의 길뿐이다.

파국적인 경제위기

미국사회전반이 심각한 경제적위기로 밑뿌리채 뒤흔들리고있다. 어제는 워싱톤에서, 오늘은 뉴욕에서 생존권을 위한 근로대중의 분노에 찬 시위행렬이 거리들을 누볐다.

고도성장과 번영, 만민평등의 비단보자기로 더러운 몸뚱이를 감싸고있던 미제는 세계앞에 더더욱 자기의 악페를 낱낱이 드러내며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통신, 방송들은 미국경제의 파산몰락이야말로 미국식자본주의의 멸망을 그대로 예고해주고있다고 보도하고있다.

2009년에 들어서서 3월까지의 기간에 미국의 주요은행들이 줄줄이 파산되였는데 그 수는 무려 20개에 가까왔다.

이 기간에 카운티뱅크를 비롯한 많은 은행들이 파산되였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자본주의경제의 견인차라고 자처하던 미국에서 막강한 자금력을 자랑하던 은행들이 무리로 쓰러지는 사태가 벌어진것은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였다.

미국경제는 그 전도를 도무지 가늠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2009년 4월 미국의 버지니아에서는 대금융업체인 프레디 맥회사의 재무담당 최고책임자인 데이비드 켈러만이 자살하였다.

프레디 맥회사는 패니메이회사와 함께 미국의 주택대부시장의 근 절반을 차지하는 2대주택대부업체인것으로 하여 켈러만의 자살소식은 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의 자살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세계적범위에로 급속히 파급된 금융위기가 초래한 비극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것이였다.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는 미국경제가 이미 2007년 12월에 제2차 세계대전후 11번째로 되는 경기후퇴기에 들어갔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의 경제는 계속되는 감퇴기에 들어갔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후 처음으로 되는 사태로서 미국이 1930년대의 대공황이래 가장 혹독하고 기간이 긴 경기침체기를 겪고있다는것을 의미했다.

미국의 경제위기는 금융분야를 타격하는 제1단계를 훨씬 넘어서서 공업토대자체를 직접 타격하는 실물경제위기인 제2단계로 넘어갔다.

착취와 략탈로 살쪄온 월가의 거대은행들이 마가을의 가랑잎신세가 되여 사라져버리고 3대자동차업체들이 파산상태에 직면하였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제네랄 모터스자동차회사는 《아메리카의 꿈》의 상징으로 간주되여있었다.

그것은 이 회사가 미국자동차공업의 제왕으로 되여있었으며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자동차판매량에서 언제나 첫자리를 차지하고있은데 있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러한 《아메리카의 꿈》이 하늘로 날아나는 사태가 일어났던것이다.

제네랄 모터스회사의 파산으로 미국내에서 이 회사산하의 14개 공장이 일제히 문을 닫았으며 수만명의 로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특히 회사의 본거지이며 많은 주민들이 이 회사에 매여있던 데트로이트시는 그야말로 악몽에 처하게 되였다.

제네랄 모터스회사의 파산을 며칠 앞두고 미국의 주요자동차부분품제작업체들인 메탈다인회사와 비스티온회사가 경영난에 시달리던 끝에 파산을 선포하였다. 또 그전에는 미국의 자동차업계에서 3번째자리를 차지하고있던 크라이슬러회사가 파산보호를 신청하였다.

경제전문가들은 원유위기와 금융위기로 인한 연료가격의 심한 파동, 자동차수요의 폭락 등이 미국자동차독점체들을 파산에로 떠민 기본요인이라고 하면서 2008년에 미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 금융《해일》이 이번에는 미국의 자동차공업을 강타하였다고 평하였다. 그런데 가관은 미국에서 종말을 고한 제네랄 모터스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한 놀음이 벌어진것이다.

이 회사가 다 망한 판에 미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새로운 제네랄 모터스회사를 내온다 어쩐다 하고 부산을 떨면서 기울어져가는 경제형편을 역전시켜보려고 모지름을 썼으나 그 전망은 암담했다.

외신들은 제네랄 모터스회사의 파산이 미국공업력사상 최악의 파멸로 기록될것이라고 하면서 그 후과로 미국의 공업토대가 붕괴될수도 있다고 예고하였다. 이것은 결코 무근거한 억측이 아니였다.

2008년 4.4분기에만도 자동차독점체인 포드회사는 59억US$, 미국의 필림업체인 이스트맨 코다크회사는 1억 3 700만US$, 전기통신설비제작업체인 모터롤라회사는 36억US$ 등 주요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액을 내면서 련이어 곤두박질쳤다.

때를 만난듯이 외국의 기업들이 련이어 미국회사들을 병합하거나 미국회사들의 주권을 대대적으로 사들였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월가의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무리로 쓰러져가자 일본, 중국,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모건스탠리은행, 메릴린치은행, 레이만브라더즈은행을 포함한 대규모금융기관들의 주식을 먹어치우거나 업무의 일부를 인수하는 등 이전에는 있어보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

로씨야의 철강회사 OAO세베스탈회사는 미국에서 10위권내에 들어간다는 에스마크회사를, 벨지끄의 앵베브맥주회사는 미국의 안호이저 부쉬맥주회사를, 이스라엘의 테바제약공업회사는 미국의 바르약품회사를, 스위스의 노바티스회사는 미국의 안과병원업체인 앨콘회사를 삼켜버렸다.

영국의 한 통신은 2008년 한해동안에만도 유럽나라들이 314개, 아시아나라들이 117개, 중동 및 아프리카나라들이 33개의 미국회사들을 먹어버렸다고 보도하였다.

기업들의 대대적인 파산은 그대로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졌다. 공장, 기업소들이 문을 닫고 공업생산과 국내총생산액이 전례없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실업률이 기록적으로 올랐다.

2008년 12월부터 시작하여 미국에서는 무려 44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져 2012년 1월 현재 미국에는 총 1 280만명의 실업대군이 거리들을 방황하고있었다.

미국에서 지난 28년동안에 인구의 1%밖에 안되는 부유층이 자기의 재산을 275%나 늘인 반면에 많은 중산층들이 빈곤층으로 전락되여 빈곤자대렬이 늘어난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미국사회에서 더더욱 격화되는 계급적모순과 대립의 심각성을 엿볼수 있게 한다.

미국에서는 1971년－2008년사이에 기업최고경영자와 일반로동자사이의 임금격차가 30배에서 300배로 확대되였으며 전국적으로 굶주리고있는 사람수는 무려 4 320만명으로서 전체인구의 12.2%를 차지하였다.

자본의 철쇄를 마스고 반동지배층의 반인민적이며 침략적인 정책을 반대하는 반월가시위투쟁이 뉴욕을 비롯한 미국전역을 휩쓸었다. 반월가시위투쟁에는 빈곤주민들만이 아니라 중산층주민들도 합세해나섰다.

미국의 언론기관들이 시위투쟁에 참가하였다가 련행된 시위자들의 구성상태를 분석해본데 의하면 대다수가 실업자들일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기술과 직업을 가진 중산층이상의 가정출신이라는것이 밝혀졌다. 거주지조건을 놓고보아도 그들은 대부분이 번듯한 개인주택들을 소유하고있었다.

미국의 주택평균가격이 18만 5 000US$라는것을 고려해볼 때 이것은 시위참가자들이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워 투쟁에 나선것이 결코 아니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 적지 않은 시위참가자들이 당국의 극심한 인종차별정책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주민들이 아니라 비교적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세계는 놀라움과 의혹을 표시하였다.

하다면 미국경제의 파국적인 사태는 과연 누가 몰아왔겠는가. 그것은 다름아닌 미국자신이며 그 가장 큰 장본인은 바로 미국의 반동지배층이다.

세계제패의 허황한 꿈을 실현하고 군수대독점재벌들의 돈주머니를 불구어주기 위하여 《반테로전》의 간판밑에 발광적으로 감행되는 침략전쟁, 생산과 소비, 분배의 불균형, 일확천금을 노리는자들의 모험적인 투기행위, 기형적인 물질경제생활 이 모든것들이 쌓이고쌓여 마침내는 이 파국적인 경제위기를 몰아온것이다.

미국에서 일어나고있는 사태는 오늘날에 와서 자본주의타도, 제국주의타도의 요구는 비단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만이 아니라 중산층도 포함한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막을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미제국주의는 제명을 다 산 력사의 오물로 되였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세상사람들은 《현재의 미국은 망하기 직전의 로마제국과 흡사하다》, 《미국은 쇠약해진 병자》라고 야유하고있다.

그렇다. 아메리카제국의 멸망은 시간문제이다.

력사의 고발

백로가 될수 없는 까마귀

2009년 1월 20일 미국력사상 첫 흑인대통령인 바라크 오바마가 제44대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들어앉았다.

1961년 하와이주 호노룰루에서 출생한 케니아계인물인 오바마는 1983년에 콜럼비아종합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에는 하바드종합대학 법률대학을 졸업한 후 법조계에 진출하였다.

1997년 일리노이주의회의 상원의원으로부터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은 후 국회상원의원을 거쳐 드디여 대통령자리를 차지하였다.

아버지는 케니아흑인이며 어머니는 캔사스주에서 나서자란 백인이다.

《자유로운 미국, 보수적인 미국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순수한 미국만이 있을뿐이다. 또 흑인의 미국, 백인의 미국, 라틴계의 미국, 아시아계의 미국이 제각기 있는것이 아니라 순수한 미국만이 있을뿐이다.》

이것은 오바마가 2004년의 미국대통령선거때 민주당전국대회에서 한 기조연설이다. 이로 인해 그는 인종혼합탕인 미국안에서 일약 유명해지게 되였으며 대통령자리까지 차지하게 되였던것이다.

하다면 미국력사상 첫 흑인대통령 오바마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현재 케니아에서 살고있는 그의 동생은 언제인가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되였다.

희망, 이것은 나의 형이 수없이 력설한 개념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나는 비로소 그러한 말의 참뜻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한번 깨닫게 되였다.

내가 살고있는 이 땅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미국에게서 착취를 당하고있기때문이다.》

전쟁과 략탈, 사기와 협잡, 강탈과 착취는 미국고유의 생존방식이다. 실제적으로 오바마집권후 미국의 군사비는 2001년에 비하여 무려 2배로 늘어났으며 세계도처에서 미국의 군사적간섭과 침략책동은 더욱 로골화되였다.

대통령선거당시 오바마는 자기를 평화의 사도로 미화분식하면서 핵무기가 없는 세계, 안정된 세계에 대하여 요란히도 떠들었다.

그러나 대통령자리에 앉은지 1년이 좀 지난 2010년 9월 5일 오바마는 핵시험을 강행함으로써 핵미치광이로서의 자기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였다.

오바마는 선거유세기간 조선을 사실상 핵보

유국으로 인정하였으며 조선에 대해 단호한 군사적선택도 배제하지 않을것이라고, 양보해서도 안된다고 하면서도 무엇보다도 첫번째 조치는 지속적이고 직접적이면서 공세적인 외교활동이 되여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자 오바마는 선거유세때의 공약을 실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조선의 성공적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의 발사와 지하핵시험에 넋을 잃고말았다.

체스꼬행각중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현지시간으로 새벽 4시 30분에 조선이 인공지구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는 긴급보고를 받은 오바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을 취한다고 복새통을 피우며 압력과 봉쇄를 강화할 모의를 꾸미여 내외의 조소를 받았는가 하면 조선과의 외교접촉을 이피탈저피탈하면서 극력 회피하였으며 이른바 강경인내전략에 매달리며 그 무슨 붕괴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놀음도 벌리였다.

미국에서 첫 흑인대통령이 나왔다고 흑인선거자들을 포함하여 아시아계, 라틴계를 비롯한 각이한 인종들이 현훈증이 날 정도로 흥분하여 선거표를 던져주었고 케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환성을 질렀지만 오바마 스스로가 뇌까린것처럼 《성조기앞에서 선서한 미국인》으로서 까마귀는 절대로 백로로 될수 없는것이다.

망해가는 나라, 더해지는 세금

탐욕스러운 어느 한 왕이 더 많은 돈을 옭아내기 위하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주변에 모자를 씌워놓은 말뚝을 박아놓고는 거기에 인사를 하도록 백성들에게 강요하고는 그렇게 안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세금을 받아내다가 끝내는 망하고말았다는 옛말이 있다.

그런데 21세기도 이제는 10년나마 흐른 오늘날에 그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세금들이 련속 나오고있는 나라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망해가는 아메리카제국이다.

금융위기로 자금난에 시달리고있는 미국의 주정부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옭아낼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생사를 결정하는 운명적인 문제로 되고있다.

2008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가뜩이나 예산적자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미국의 주정부들을 궁지에로 몰아갔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 주정부들의 예산적자는 도합 300억US$를 넘어섰다고 한다. 예산수입으로 더 많은 자금을 긁어모아 파산에 직면한 기업체들에 자금을 대주고 저들의 정치적생명을 연장

하는것이 주정부들의 급선무인것이다.

미국에서는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고들 한다.

그래서 주정부들은 추가자금을 얻는데 필요한 별의별 방법과 대책들을 고안해내느라 머리를 짜내고있다.

많은 하부구조대상들을 사유화하거나 경매에 붙이고있으며 공원과 해수욕장, 골프장을 비롯한 지방자치제소유의 재산들을 임대해주는 조치들이 연방 취해지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보다 더 손쉽게, 더 안전하게, 더 많은 돈을 옭아내야 하겠는데 그 공간이 바로 세금인것이다.

세금은 자본주의국가예산수입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죽을 때까지 애를 먹이는것이 세금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세금이 사람들을 괴롭히고있다.

수십종을 헤아리는 세금부담으로 사람들은 2중3중의 착취를 당하면서 극심한 생활난에 시달리고있다.

금융위기로 아우성치는 미국에서는 여러가지 세금항목들이 줄줄이 생겨났다.

세금항목을 늘이는데서는 금융중심지라고 하는 월가의 혼란으로 제일 큰 재정적타격을 받고

있는 뉴욕주가 앞장에 서있다.

2009년초 미국의 뉴욕주 지사 데이비드 패터슨은 주내 주민들에게 88가지 항목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것을 예견한 2009년예산안을 발표하였다.

그가 고안해낸 기발한 착상들가운데는 휴대용음악재생기를 소유하고있는 사람들은 모두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항목도 들어있다. 음악재생기는 인터네트에 돈을 내고 일련의 프로그람을 통하여 노래감상을 하는 기구를 말하는데 미국에서 류행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데다까지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삶은 소대가리도 웃지 않을수 없는 노릇이다.

이외에도 어처구니없는 세금은 허다하다. 택시를 임대하고 체육시설 및 오락장입장권을 구입하며 위성TV 또는 위성라지오에 접속하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야 하며 지어는 뉴욕주내에서 판매되는 려송연에도 대당 0.5US$의 세금을 부과할것이라고 한다.

지금 미국의 통치배들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의 주머니를 강제로 털어내서라도 엄청나게 늘어난 재정적자를 메꾸고 예산수입을 늘이려 하고있다.

수많은 사람들을 울리는 세금강탈책동은 그

어느 주나 할것없이 마찬가지이다.

워싱톤시당국은 가로등의 유지 및 보수명목으로 시민 1인당 매달 51US$를 거두어들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사람들을 아연케 하였다.

정부의 무분별한 전쟁책동과 무질서한 투기행위들에 의한 금융위기의 고통을 겪고있는것도 빠근한 노릇인데 이제는 무거운 세금바가지까지 고스란히 들써야 하니 사람들은 너무도 기가 막혀 혀를 차고있다.

이밖에도 숙박세, 비만세 등 세금에 대한 여러가지 기발한 묘안들이 미국의 여러 주들에서 경쟁적으로 착상되고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마초세까지 등장하는 판이다. 이 제안의 당사자인 캘리포니아주의회 의원 톰 애미아노는 주의 재정을 한푼이라도 더 해결하기 위해 대마초거래를 합법화하고 거래되는 대마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장려해야 한다는것이 바로 미국 주정부들의 립장이다.

미국에서 합법화되여가고있는 도박을 통해서도 이것을 잘 알수 있다. 원래 미국에서는 국제적인 도박의 중심지인 라스베가스를 내놓고는 도박장운영이 법적으로 금지되여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미국의 많은 주들에서는 형식상으로나마 유지해오던 도박금지간판을 내리우고 도박의 합법화를 실현하려 하고있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가 전한데 의하면 최소한 14개 주가 자기 경내에서 도박장들을 신설 및 확대할것을 검토하고있다.

사우스캐롤라이너주에서는 이전에 도박을 금지시켰던 주지사자신이 도박업을 되살리는데 솔선 앞장섰다.

텍사스주에서도 인차 도박업이 합법화될것이라는 보도가 나돌고있으며 죠지아주 역시 도박장들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예산적자를 메꾸려하고있다고 한다.

이를 좋은 기회로 삼은 미국의 유흥업계가 주당국들을 유혹하면서 기업을 확대하고 수입을 늘이기 위해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앞으로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밀려드는 도박군들로 하여 부패한 미국사회가 더욱더 썩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금융위기해소의 명목하에 미국의 주정부들이 저저마다 강행하고있는 세금수탈정책은 비틀거리는 경제로 마지막숨을 몰아가고있는 미국의 가련한 처지를 다시한번 보여주고있다.

문명이 아니라 암흑에로

문명사회라고 떠들어대는 미국이 암흑사회로 가고있다.

미국의 한 사회단체가 18살부터 24살까지의 청년들을 대상하여 진행한 전국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의하면 조사에 참가한 청년들중 88%가 세계지도에서 아프가니스탄을, 63%가 이라크를 제대로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또한 절반이상의 청년들이 자기 나라에서 뉴욕을 짚지 못하였다.

2005년 《커트리너》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것으로 하여 광범히 보도된바 있는 루이지아나주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은 3분의 1에 달하였다.

특히 미국에서 대학생들의 지식수준은 매우 한심한 형편에 있다.

미국의 AP통신이 발표한 전국적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4년제대학 학생들의 절반이상과 2년제단과대학 학생들의 75%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제대로 할수 없는 수준에 있다고 한다.

과학상식이 또한 매우 부족하다.

미국의 어른들중 절반이상이 지구가 해마다

태양주위를 한바퀴씩 공전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미국전국과학재단이 미국인들의 초보적인 과학경제지식수준을 판정하기 위하여 진행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분자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9%, 오존층구멍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14%에 불과하였다.

제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미국인들 역시 많다. 미국의 성인인구의 20%가 눈뜬 소경이고 20살이상의 청년들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 때문에 거리와 기타 장소들에 나붙은 간판글조차 볼줄 몰라 상점에 들어간다는것이 식당으로, 탈의실로 들어간다는것이 위생실로 들어가는 희비극이 곳곳에서 일어나고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군병사들속에서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미국병사들 대부분이 글을 모르는 까막눈들이기때문에 미국방성은 글자가 하나도 없는 순수사진과 그림으로 된 병서를 만들어 미군병사들에게 무기성능과 구조 등을 해득하게 하고있다.

미국에서는 중학교 교원의 25%가 대학문앞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때문에 그들은 수업시간이 되면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하는척 하다가 만다고 한다.

학교를 졸업한 무식쟁이들이 다시 학교에 들

어가 교원노릇을 한다는것이 더 우스운 일이다.

미국의 40여개 주에서는 교원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할지라도 그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교원으로 취직할수 있다는것이 법적으로 담보되고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런 얼간망둥이교원들을 보고 무식쟁이교원이라고 부르고있다. 무식쟁이교원들에게서 배운 학생들이 멍텅구리로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일반주민들뿐아니라 장, 차관급관리들 지어는 대통령들도 무식하기가 짝이 없다.

에스빠냐신문 《엘 빠이스》는 력대 미국대통령들중 지능지수가 가장 낮은 대통령은 죠지 부쉬(2세)라고 전하였다. 루벤스따인연구소의 한 연구사가 오랜기간 력대 미국대통령들의 학력과 영어사용능력 등을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부쉬는 지능지수가 91로서 클린톤의 182에 비해 절반밖에 안된다고 하였다.

클린톤이 1만 1 000개의 어휘를 사용한 반면에 부쉬는 6 500개의 어휘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부쉬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영학공부를 한 후 재교육을 받은적도 없고 또 책이나 론문을 써낸적도 없다고 한다.

가정래력인지 아버지부쉬는 지능지수가 98로

서 아들다음으로 낮다고 한다.

공부한 문맹자, 이것은 미국의 반동적사회제도가 빚어낸 기형적인 현상이다.

독점자본이 판을 치는 미국에서는 학교교육도 사람들을 자본의 노예로 만드는데 복종되고있다. 미국의 억만장자들에게는 사람들이 글을 알건모르건 관계없이 오직 저들을 위하여 리윤을 가져다주기만 하면 되는것이다.

결국 학교도 학교문을 나서는 학생들이 글을 제대로 쓰고 읽을줄 몰라도 그것은 상관할바가 아닌것이다.

오늘날 문맹자가 문맹자를 가르치는 미국에서는 문맹자가 줄어드는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욱 늘어나고있다.

미국에서 문맹자가 범람하게 된것은 다름아니라 미국자체의 사회제도, 교육문화시책에 전적인 원인이 있다.

제 나라 글도 제대로 읽고 쓸줄 몰라 정치사상생활은 물론 경제생활, 문화생활에도 제대로 참가할수 없는 문맹자들의 나라인 미국은 문명사회가 아니라 문맹사회, 암흑의 사회, 무지의 사회이다.

죽음의 병- 에이즈

에이즈란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이라는 영어의 첫머리글자들을 따서 붙인데서 유래된 말이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죽음의 병, 악마의 병으로 불리우고있는 이 병은 1978년에 미국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자본주의세계에 급속히 번져져 사람들을 무서운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에이즈는 면역결핍증비루스에 의하여 일어나는데 이 비루스는 사람의 림파구에 작용하여 그것을 파괴한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3 000종의 비루스가 발견되였는데 그중250여종이 병원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이 밝혀졌다.

이 모든 비루스들가운데서 에이즈비루스처럼 병원성이 센 비루스는 없다. 이 비루스는 미국방성 생물 및 화학무기연구소인 포트데트리크연구소가 생물전쟁을 목적으로 새롭게 개발한것이다.

미국의 생물무기전문가들은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 특수한 병원체를 수집하고 세포공학, 유전자공학, 면역학의 최신성과들을 악용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원체인 에이즈비루스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이 비루스를 감옥의 죄수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는데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자 죄수들을 석방시켰다. 잠복기간이 긴 에이즈의 증상은 그들이 석방된 후에 나타나게 되였는데 그들의 문란한 성행위로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2012년 세계보건기구가 밝힌데 의하면 당시 세계적으로 등록된 에이즈환자수는 34만 5 000여명이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적으로 에이즈환자수는 세계보건기구에 등록된 환자수보다 2～3배나 더 많을것으로 추산하고있다.

오늘 에이즈는 세계 모든 대륙에서 놀라운 속도로 퍼지고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세계여론들은 이 죽음의 병이 인류의 생존자체를 우려하게 한다고 경종을 울리고있다.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악마의 병, 죽음의 병도 서슴없이 만들어내는 미제야말로 인류의 원쑤, 극악한 살인마이다.

파산되는 가정, 망하는 나라

가정들의 파괴는 사회의 파멸에로 이어지는 법이다.

자본주의사회의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방식으로 하여 미국에서는 신성한 가정륜리가 여지없이 말살되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있다.

미국의 가정 거의 모두가 단친가정 즉 아버지나 어머니 하나만 있는 가정이며 그 가정에서 자란 자식들의 도덕수양정도는 말이 아니다.

원래 미국에는 자녀를 가진 가정이 전체 가정의 절반도 안된다. 그런데다가 그중의 3분의 1은 아버지를 모르는 사생아들이거나 어머니가 없는 단친가정들이다.

미국인구조사국이 발표한 가정에 대한 분석보고서는 1993년 당시 미국에는 살림집이 총 9 640만호가 있었는데 그중 가정이 소유한 살림집은 총 호수의 71%로서 1970년의 81%보다 훨씬 적어졌다는것을 보여주었다.

1993년에 미국의 단친가정은 1 000만세대, 그중 어머니 혼자인 가정은 900만세대이고 아버지 혼자인 가정은 100만세대였다.

단친가정은 흑인들속에서 보편성을 띠고있다

고 하지만 백인단친가정의 절대수자는 흑인들의 경우보다 더 많다고 한다.

미국의 단친가정들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 하는것이 문제로 되고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중하층가정들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다.

현재 미국에서 아이들을 가진 녀성의 55%는 직업녀성들인데 탁아소, 유치원, 학교와 같은 사회적인 보호기관의 혜택은 생각조차 할수 없으며 하루벌이를 위해 직업에 분망하다나니 아이를 제대로 키울수 없다.

리혼하였거나 남편이 사망한 그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을 탁아소에 맡길 비용을 감당한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부담으로 되고있으며 보모를 둔다는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홀로 있는 어머니들은 다른 나라들에서 온 비법단기거류자들에게 비용을 적게 주고 아이들을 맡기려 하지만 발각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그 누구의 교양과 보호도 없이 자연방목과도 같은 사회적무관심속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모두가 다 후레자식들로 되리라는것은 뻔한것이다.

친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경력이 있는 클린톤은 집권후 죠이 벨트라는 녀성을

사법상으로 제의하였으나 그 녀자가 보모를 비법적으로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기때문에 상원의 비준을 받지 못하였다. 그후 클린톤은 우드녀성을 다시 인선했으나 그 역시 보도계로부터 비법적인 이민을 보모로 고용했다는 비난을 받아 이 두 사건은 보도계에서 일명 《보모들의 사건》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단친가정의 증대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3억을 가까이 하고있는 미국의 총인구중에서 집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700여만명인데 평균 1 000명당 28명이 1년내내 수용소에 들어가있거나 공원을 집으로 삼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정상적인 가정구조가 파괴위험속에 처해있다.

사생아비률은 흑인녀성의 경우에는 50%, 백인녀성의 경우에는 20%에 달하고있다.

미국에서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미혼녀성들이 임신하고있다. 그들은 시집을 가지 않고 무질서한 성행위로 아이를 낳아 기를것을 바라면서 아이는 있어도 남편은 필요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에 물젖어있다.

미국국세조사국의 한 보고에 의하면 1992년에 전국적으로 18살부터 44살까지의 미혼녀성들중 23.7%가 애기어머니였는데 이것은 10년전에 비하여 8.6%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사회학자들은 미혼어머니들의 다수가 성생활에 호기심이 많은 20대전후의 녀성들이 아니라는데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이전시기에는 20대전후의 녀성이 미혼어머니의 50%정도였다면 당시는 30%계선으로 떨어지고 대신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30살정도의 녀자들의 비중이 늘어나고있었다.

썩어빠진 생활문화가 란무하는 미국의 녀성들은 결혼후 높은 리혼률의 후비군으로 될바에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것이 낫다고 생각하고있는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서 미혼어머니들이 날로 늘어나는 현상을 놓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을 부양하는 많은 직업녀성어머니들에게 정부가 계속 방조를 준다면 미혼어머니들이 늘어나는것을 장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라고 하고있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단친가정들에 대한 면세, 감세조치를 크게 취하면 정부의 세금징수원천에 영향을 주게 되며 그렇다고 하여 미혼어머니들도 남편이 있는 가정들과 똑같은 경제적부담을 걸머지게 한다면 단친가정들에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세워야 하겠는지 골치거리라고 개탄하고있다.

미국국세조사국의 1992년도 보고에 의하면 홀어머니가정의 47%가 빈곤가정이라고 한다.

단친가정의 아이들의 학습성적은 좋지 못하며 그런 집 처녀애는 커서 제어머니처럼 다시 남편이 없이 사생아를 낳아키우는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홀어머니의 대를 잇는 셈이다.

미혼어머니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질서한 혼인과 리혼제도, 가정파괴의 후과 등 미국의 사회제도자체에 있다.

그러니 미혼어머니와 단친가정들에서 제멋대로 자라난 자녀들이 후레자식이 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이로 하여 청소년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있으며 때문에 전 미국대통령 클린톤까지도 미국에는 가치관위기와 정신위기가 도래하였다고 비명을 질렀다고 한다.

썩어빠진 생활양식으로 인한 가정파괴는 미구에 도래하게 될 미국사회의 파멸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수감자대국, 범죄대국

미국이 사회에 더욱 만연되는 범죄로 하여 몰락해가고있다.

2012년 미사법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수감자수는 이미 230만여명에 달하고있다고 한다. 이것은 세계적인 수감자수의 4분의 1에 해당되는것이다.

국제인권감시기구 미국담당 책임자는《미국은 수감자수가 2006년에 벌써 주민평균 10만명당 751명으로서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나라로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미국의 형무소수감자수는 유럽 전체 수감자수의 6배를 넘는다.

미국에서 수감자수가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것은 다른데 원인이 있는것이 아니라 바로 범죄의 급증에 있는것이다.

사실상 미국땅전체가 범죄의 소굴이다.

강도와 절도, 강간, 마약 등 중범죄가 꼬리를 무는 속에서 사람들은 한시도 마음편히 살지 못하고있다.

그래서인지 미국식인사례절이라는것도 생겨나게 되였다.

언제인가 서방의 어느 출판물은 한 외국인의 미국방문기를 실은적이 있었다.

내용인즉 그 외국인이 길을 가는데 지나치는 미국인들모두가 하나와 같이 실없는 사람처럼 히죽히죽 웃는가 하면 말을 걸기만 하면 묻지 않는것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례절을 지키더라는것이였다. 하도 이상하여 그 리유를 알아보니 미국의 거리를 걷다가 인상을 잘못가졌다가는 순식간에 총알받이가 되기 쉽기때문이라는것이였다.

참으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

미국의 거리를 걸을 때에는 총에 맞아 죽지 않기 위해 밝은 웃음을 애써 짓고 다녀야 하니 참으로 고달픈 노릇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지구상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을 일명 범죄대국이라고도 한다.

이 범죄대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되는것이 살인범죄, 폭력범죄이다.

미국에서는 1980년이후에만도 약 40만명이 살해되였는데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미국인수와 맞먹는다고 한다.

미국에서의 살인률은 영국의 20배, 프랑스와 도이췰란드의 10배나 된다.

살인은 도시들에서 많이 감행되고있는데 인구의 11.5%가 살고있는 미국의 20개 도시들에서의 살인률은 전체 살인률의 34%를 차지한다.

또한 흑인들은 미국인구의 13%를 차지하고있으나 살해당하는 비률은 45%를 차지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주민 2명중 1명이 무기를 소유하고있으며 2억 3 000만정의 무기가 상품으로 거래되고있는데 1990년~1995년기간에만도 1만 2 251정의 권총, 1만 1 911정의 소총과 사냥총, 580만 US$어치의 탄약이 상품으로 제조되였다고 한다.

1995년 한해동안에만도 총기류에 의한 살인건수는 1만 7 800건에 달하였다.

미련방수사국이 밝힌데 의하면 살인범죄에서 증오범죄의 비률이 급속히 높아지고있는것이 가장 큰 골치거리라고 한다.

1995년 한해동안에 일어난 증오범죄는 무려 8 700여건에 달하였는데 그중 5 396건은 인종주의로부터 산생된 범죄이며 1 401건은 종교에 의한 범죄, 1 016건은 동성련애 등 성적기호에 관한 범죄, 940건은 민족차별에 의한 범죄라고 한다.

피해자 1만 1 000명중 7 000명이 인종적증오로 하여 화를 당한 사람들이였는데 그중 4 600명이 흑인으로서 그들은 미국의 뿌리깊은 인종차별의 희생물이 된셈이다.

20세기 세계최대의 살인자 10명중 3명이 미국인이며 총기류로 한번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10명의 살인마중 5명이 미국인이라고 한다.

증오범죄가 늘어나는데 당황한 미국지배층은 아우성을 치면서 그 무슨 범죄방지에 대하여 운운하고있으나 이미 미국사회에 만연된 범죄를 막을 길은 도저히 없는것이다.

미국신문 《인터내슈널 헤럴드 트리뷴》은 《돈도 과학도 한가지 전염병만은 고칠수 없다. 즉 살인을 없애지도 경감시키지도 못한다. 총기류문제를 해결하자면 정치적용단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정부가 이러한 응당한 용단을 내리지 못한다. 의학적, 화학적, 기술적 또는 정신적구제대책은 가까이에 없으며 지평선에도 없다.》고 아우성을 쳤다.

어느놈이나 할것없이 다 도적놈들이고 날강도들이지만 거기에서도 가장 큰 범죄조직은 미국의 마피아단이다.

마피아는 원래 1820년부터 1948년까지 이딸리아의 시칠리아섬에서 이른바 질서를 유지하려는 대지주들의 발기에 따라 무어졌는데 미국의 마피아들은 점차 세력을 확대하여 본고향의 선배들도 무색케 하는 세계적인 강도단으로 자라나 명성을 떨치고있다.

언제인가 미국신문 《유에스 뉴스 앤드 리포트》가 전한데 의하면 마피아단은 도박, 악행, 주류밀매, 랍치, 마약거래, 고리대금업, 매음 등으로 년 2 000억US$의 부정리득을 얻는다고 한다. 돈액수만 보아도 실로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피바다우에 솟아난 미국, 그 시작부터 피와 오물을 인류력사우에 쏟아놓은 미국은 오늘 세계에서 가장 큰 범죄의 소굴로 되고있다.

오늘 미국에서는 평균 2초마다 1건씩의 범죄사건이 빚어지고있는데 그 가운데서 살인사건은 23분, 략탈사건은 57분, 자동차도난사건은 22초, 각종 절도사건은 4초에 한건씩 일어나고있다.

마피아살인강도단은 뉴욕을 중심으로 시카고, 보스톤 등 미국의 여러 도시들에 30여개의 지부와 무려 6 000여명의 무장강도들을 거느리고 몸서리치는 범죄를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다.

살인, 강도, 강간을 비롯한 범죄사건으로 하여 도시들에서는 숱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를 꺼려하고있으며 《폭력배들때문에 마음놓고 살수 없다.》고 개탄하고있다.

미국부녀자들의 13%가 강간사건의 피해자들이다.

범죄는 미국의 만성적인 류행병이다.

미국에서 폭력범죄 못지 않게 성행하는것은

마약범죄이다. 마약을 쓰는것이 사회적풍조로 만연되여 현재 2 300만명이상이 마약을 사용하고있으며 마약의 년거래액은 500억US$이상, 마약을 사용한 일이 있는 사람은 1억명에 달한다 . 그러니 미국의 성인들은 모두 마약중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사회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범죄가 사회생활의 전통으로 되고있을뿐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미국인의 체질로 되여 일종의 숭배대상으로까지 되고있는것이다.

미국은 도적들의 천국이기도 하다.

온갖 범죄가 성행하는 미국에서는 절도사건이 분과 초를 다투며 일어나고있다.

개인의 물건들을 털어내는 문제는 여기에서 론할 정도가 아니다.

몇해전 미국의 뉴욕에서는 다니엘 로렐로라는 자가 력사문서를 훔쳐내여 팔아먹다가 발각되여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는 미국의 이전 고위급정객의 서한을 훔쳐내여 인터네트 경매싸이트에 게재하였다가 한 력사애호가에게 덜미를 잡히였다. 게재되였던 서한에는 《보존상태가 아주 좋다. 100% 만족을 담보한다.》는 메쎄지가 첨부되여있었는데 1 700US$이상으로 정한 경매가격이 붙어있었다.

문제는 그의 력사문서절도사건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라는데 있었다.

그는 교육부문의 문서담당직원이라는 직권을 악용하여 주립도서관에서 400점이상에 달하는 력사문서 등을 훔쳐내여 팔아먹었다.

력사문서를 훔쳐내여 팔아먹은 범죄사건은 이것만이 아니였다.

미국립공문도서관 필라델피아분관의 직원인 범죄자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약 100건의 주요 력사문서들을 빼내여 경매회사에 팔아 많은 돈을 챙기였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잃어진 력사문서들을 찾는 복닥소동이 벌어졌으나 행차뒤 나발격으로 되고말았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도 샌다는 말이 있다.

미국도적질상습자들의 도적행위는 국내에만 국한된것이 결코 아니다. 미제침략군의 발길이 닿는곳마다에서 문화유물절도를 비롯한 범죄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이라크전쟁시기 대통령궁전에서 감행한 미군의 도적질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당시 이라크대통령궁전의 어느 한 방에 쳐들어간 2명의 미군병사중 한명은 벽에 걸려있던

미술작품을 떼내는 등 값진 물품들에 대한 도적질부터 시작하였다. 그동안에 다른 한 미군병사는 문어구에서 밖으로 총구를 내대고 도적질에 여념이 없는 동료를 엄호하였다.

어느해인가 이라크의 한 은행에서는 미군의 감시하에 돈궤짝압수와 운반이 진행되던 도중 몇개의 돈궤짝이 감쪽같이 분실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 역시 도적질에 인이 박힌 미군병사들의 작간이였다는것이 후에 드러나게 되였다.

테로방지를 코에 걸고 수시로 무고한 이라크사람들의 집에 쳐들어간 미군병사들은 한가지라도 꼭 무엇인가 훔쳐가지고 나오군 하였다.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도 맑은 법이다.

미국에서 성행하는 도적행위는 부정부패의 서식장인 미국정계의 어지러운 풍조를 그대로 닮은것이다.

미국대통령 부쉬의 국내정책담당보좌관이였던 앨런이 백화점에서 25차례에 걸쳐 5 000US$이상에 달하는 물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였다.

그가 훔친 물품들중에는 불과 2.5US$짜리의 물품도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의 측근이며 정부의 고관이라는 작자가 소매치기상습범도 거들떠보지 않는 물건따위를 훔치는 좀도적질까지 하

는 형편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범죄에서는 경찰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얼마전에 미국의 로스안젤스시재판소에서는 페레스라는 이 도시의 이전 경찰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였는데 그의 죄명은 2년전에 경찰의 증거품보관장소에서 3kg의 코카인을 도적질한것이였다.

밀수업자들에게서 압수한 마약을 도로 빼내여 자기주머니에 넣은 페레스의 행위도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지만 그보다 더 사람들을 아연하게 한것은 그가 자기 형기의 경감을 간청하면서 털어놓은 경찰의 실태자료였다.

페레스는 증언에서 자기뿐아니라 다른 경찰들도 증거날조, 마약밀매, 협박 등 각종 범죄행위들을 수시로 감행한 사실들을 밝히면서 경찰들이 자기 관할지역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주는것을 일종의 쾌락으로 삼기까지 한다고 고백하였다.

지어 경찰들이 제마음대로 혐의자를 총살한 죄행까지도 드러나게 되였다.

이를 두고 미국잡지 《뉴스위크》까지도 페레스의 증언내용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것이였다.》라고 하였다.

경찰가면을 뒤집어 쓴 특등범인들이 그 무슨 범죄를 막고 치안을 유지한다니 실로 경악할 일이다.

이처럼 경찰들이 범인으로 되여 사회적규탄과 비난의 대상으로 되는 일들이 련발하는것은 로스안젤스에만 국한된 현상이 결코 아니다.

오직 미국사회에만 있을수 있는 수감자대군과 정치가좀도적, 경찰범인 이 모든것은 황금만능과 약육강식의 법칙이 란무하고있는 미국사회제도의 부패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는것이다.

미국사회에서 보편화되고있는 이러한 현실은 멸망의 길로 줄달음치는 부패한 사회가 낳은 응당한 결실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비운이 드리운 아메리카제국

핵몽둥이와 딸라뭉치를 휘둘러대면서 세계제패야망실현에 미쳐날뛰는 아메리카제국의 하늘가에 비운이 칠칠히 드리웠다.

세계도처에서 성조기를 날리며 《초대국》의 위세를 뽐내던 미국의 처지는 달라졌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반항과 배척, 비난과 조소의 대상으로 된것이 바로 오늘날의 아메리카합중국이다.

미국잡지 《뉴스위크》는 《미국사람들은 퍽 오래전부터 자기 나라가 항상 초대국이기때문에 세계에 적응될 필요가 없다고 믿어왔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릴 때가 왔다.》라고 하였으며

다른 한 미국잡지도 《미국은 로년기에 들어섰으며 황혼길을 걷고있다.》라고 개탄하였다.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도 미국이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지만 자기의 《지도력》을 발휘하기는 힘들것이라고 야유하였다.

이러한 론조들은 멸망과 파국에로 줄달음치고있는 아메리카제국의 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있는것이다.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황혼기에 있는 미국의 로환증세는 너무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미국이 독판치기를 하던 유엔무대가 오늘에 와서는 미국을 단죄하는 마당으로 변해가고있으며 국제인권재판관행세를 하느라고 분주탕을 피우나 오히려 세계인권재판정에서 피고로 몰리우고있는것이 바로 아메리카제국이다.

백악관의 우두머리들까지도 《미국의 거수기는 더는 통하지 않고있다.》고 아우성을 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은 그 무엇으로써도 세계정치무대에서 이미 기울어진 저들의 운명과 처지를 되돌려세울수 없게 되였다.

미국경제도 조락의 길에 들어섰다.

지난 시기 자본주의경제학자들은 미국이라고

하면 세계경제의 기관차라고 생각하여왔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 사정은 달라졌다.

미국의 경제적지배권이 심히 약화되였으며 그 위기의 심각성은 더욱 파국적인것으로 되여가고있다. 미국의 이전 경제고문이며 국가경제연구소 소장인 마틴 펠드스타인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이래 가장 심각한것으로 될수 있는 경제감퇴의 계선에 들어섰다.》라고 경고하였다.

2001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5 580억 2 000만 US＄를 훨씬 넘어섰다. 이것은 1913년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가 창립되였을 당시에 비해 근 4 700배로 불어난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내에 미국의 채무액이 26조US＄로 늘어날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수자와 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되였다.

한편 국제금융계에서는 딸라의 지배적지위가 허물어지고있다. 이것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지위가 붕괴되고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미국은 방대한 군사비와 재정적자해결을 위하여 딸라를 마구 찍어 람발하고 아무런 담보도 없는 채권을 대량 발행하여왔다. 이것은 미국을 세계최대의 빚쟁이로 만들었다.

딸라제국이랍시고 채권을 마음내키는대로

발행하고 그 대가로 경제를 운영하여온 미국은 오늘 그것이 곪아터져 투자가들로 하여금 미국의 채권이 한갖 종이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

미국딸라를 기준통화로 하는 낡은 국제금융체계를 대신하는 새로운 국제금융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는 속에 그를 위한 현실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있다.

딸라를 기준통화로 하는 국제금융체계에 매여있거나 미국의 국채나 딸라자산을 가지고있는 나라들은 자칫하면 하루아침에 빈손털고 나앉을 위태로운 상태에 처하게 되리라는것을 내다보고 대응조치를 취하고있다.

미국의 군사적우위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이 약화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세계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무기들을 대대적으로 생산, 배비하여왔다. 특히 새로운 핵무기개발과 생산에 막대한 자금을 들이밀었다.

그런데도 미국의 군사적우위는 날이 갈수록 약화되여가고있으며 자그마한 국부전쟁도 변변히 치르어내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미국의 《반테로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미국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대규모무력과 최신과학기술성과를 도입한 각종 대량살륙무기까지 동원하였으나 숱한 사상자만을 내고있다. 미강점군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야수적인 학살만행으로 인민들을 놀래우고 미국의 세계유일초대국지위를 과시할수 있으리라고 망상하였지만 그 어떤 살인만행으로도 그들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오히려 이 나라들에서는 인민들의 반미감정과 투쟁의지만이 더욱 강해졌다.

제반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제는 이미 자기 시대를 다 살았으며 그들에게는 오직 최후멸망만이 남아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는 어떻게 하나 저들의 가련한 운명을 구원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지만 결코 망해가는 운명을 달리할수는 없다.

미제의 멸망은 불가피하다.

*   *   *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미제국주의는 인류의 량심과 도덕 아니 인간자체를 거부하고 모욕하고 도전하는 악의 대명사이며 그 총체이다.

아무리 분칠하고 도금하여도 그 추악한 면모를 감출수 없어 인류의 면전에서 그 정체를 적라라하게 드러내놓지 않으면 안된 미제의 멸망은 이미 그 누구도 의심할수 없는 기정사실로 되고있다.

세계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미국의 멸망은 시간문제이다.

미국의 진면모 5
번영이 아니라 멸망이다

편집: 김준혁
낸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발행: 주체105(2016)년 5월

ㄱ-683557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
http://www.naenara.com.kp

조선 · 평양

주체105(2016)년

ISBN 978-9946-0-1447-0

9 789946 014470